

몽골 시민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안에 반발하며 시위

이번 주 몽골 국회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P.사인조릭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은 몽골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수와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가족, 노동 및 사회복지부 장관 L.엔크암갈란은 "이동 노동력 관련 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오늘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시위를 열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시민 참여 연합당과 SAIN당의 공동 요구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몽골인을 자국에서 밀어내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여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는 법안을 제안한 정부는 전원 사퇴할 것.
- 해당 법안을 의도적으로 발의한 다섯 명의 의원을 철회할 것.
- 해당 법안을 심의하지 않을 것.

만약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경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또한, 이번 달 25일, 26일, 27일에 시민들의 추가적인 반대 시위를 조직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반대 시위 중 일부 시민들이 도로 교통을 차단하려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법안 철회,

국민 의견 존중하며 추가 연구 약속



몽골 국회의원,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안 철회... 국민 의견 존중하며 추가 연구 진행.

몽골 국회의원 P.사인조릭은 “몽골에서 외국인이 노동할 수 있는 인원 및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비용을 면제하는 법안과 이 법안과 함께 마련된 노동력 이동 관련 법률 개정안 및 행정법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첫째로, 국민의 의견과 비판을 존중하고자 한다.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국가 경제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몽골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단기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방법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인조릭 의원은 “몽골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재정뿐 아니라 노동력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민간 부문이 제때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 예산 투자도 지연되고 있다. 오늘날 국민들이 보내온 의견과 비판을 검토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법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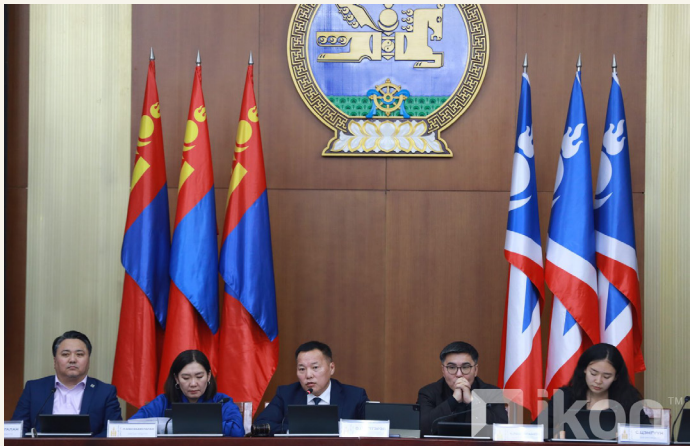
또 다른 국회의원인 N.바트숨브렐은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노동력 관련 문제, 불필요한 부담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법안 준비 과정에서 연구와 정보 제공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국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 논쟁,

몽골 개발의 갈림길

해외 노동력 도입 법안 놓고 내부 갈등

몽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해외 노동력 도입 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인 S.첸군(S.Tsenguun)은 해당 법안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첸군 의원은 "몽골의 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외국 세력의 개입을 우려한 비현실적 공포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더 이상 터무니없는 우려와 정치적 선동으로 국가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과거 전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중국화' 논란으로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몽골의 발전을 방해하는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몽골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전문 기술 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외 노동력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S.첸군 의원은 "몽골의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해외 전문 인력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호찌민, 첫 지하철 개통

베트남 호찌민, 첫 지하철 개통...도심 교통 혼잡 해소 기대



베트남 호찌민시가 첫 번째 지하철 노선을 개통했다. 도심 벤타 시장에서 서쪽 외곽 쭈이띠엔 공원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은 총 14개 역으로 구성되며, 지하 3개 역과 지상 11개 역이 포함되어 있다.

17년의 계획과 12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된 이번 지하철은 도시 교통 체증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통 기념으로 한 달간 무료 운행하며, 이후 요금은 거리에 따라 7000~20000동(27~79센트)으로 책정된다.

호찌민시는 향후 8개의 추가 노선을 계획 중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일본의 자금 지원으로 건설된 이번 노선은 중국이 지원한 하노이 지하철과 함께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영향력이 경쟁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5년, 톨강 따라 33km 고속도로 건설된다



울란바토르 시의회 임시 제3차 회의가 열리며 주요 안건들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 예산 추가 변경, 2025년도 예산 승인, 그리고 "자동차 운송 등록 및 관리 센터" 설립을 포함한 5가지 사안을 다룬다.

특히 울란바토르 시장 KH.남바타르는 2025년에 톨강을 따라 33km 길이의 신호등 없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그는 "투울 강 북쪽을 따라 울란바토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교통 흐름을 완전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입찰 공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울란바토르 도시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